

# 열대야, 며칠째夜!

### 광주·전남 나흘째 지속... 일주일째 폭염 다음 주 초 비온 뒤 무더위 더 강력해질 듯

폭염특보가 일주일째 내려진 15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낮 기온은 32도 이상이고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어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과 17일 낮 기온은 15일 낮 기온보다 1~2도 낮아지겠지만, 30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고 있다.

일부 내륙과 해안지역은 35도 이상의 체감온도를 보이는 곳까지 있어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열대야 현상도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은 25.5도에 달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늦은 장마에다 7월 초에 형성된 장마전선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져 있어 7월 초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지만, 우리나라에는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올 여름 장마는 다음 주 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장마가 끝나고 더 더운 폭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장마가 물러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대기 상층으로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발달하며 '열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같은 역대급 폭염이 올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기상청은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오후 2~5시는 피해야 하고, 작업시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가족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송풍장치, 분무 장치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축사 온도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성 득량만과 여수 가막만, 함평만 등 전남 내만에 올해 첫 고수준의보가 발령돼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득량만·함평만·가막만의 수온이 올해 첫 고수준의보 발령기준(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5일 오후 2시를 기해 고수준의보를 발령했다.

득량만 등 전남 내만은 수심이 얇고 넓은 갯벌이 분포하는 반폐쇄적 구조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수온이 급격히 올라간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양식생물의 생리적 기능이 약화돼 대량 폐사 발생이 우려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사에 의한 햇볕데임,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고 장시간 농작업이나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하철로 출근하고 청소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15일 오전 광주지하철 상무역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은 매일 15일을 'Green walking 데이'로 정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지하철역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역문화 가치 높은 광주 동구 수상 잇따라

###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한국문화가치대상' 등

광주시 동구가 지역 문화적 가치를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연이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베스트축제 기초자치단체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후원해 107개 지자체와 67개 업체 등 174개 부스가 참여한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 운영 및 홍보, 콘텐츠, 부스 조성 등 심사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은상을 받았다.

이 박람회에서 '힐링보약 YES 총장축제'라는 주

제로 '제18회 추억의 총장축제'를 전국에 알렸다.

또 동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과 정책개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해 우수문화정책을 발굴·홍보함으로써 한국의 문화가치를 높이고자 지난 2019년 제정한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는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찰청, 총경급 285명 전보 인사

경찰청은 15일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이준영 총경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28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문병조 해남서장이 오게됐고, 백형석 광주청 생활안전과장은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윤관 총경이 경비과장, 김영록 정읍서장이 광주청 수사심사담당관을 맡는다. 조영일 순천서장은 형사과장, 임진영 총경은 생활안전과장, 장승명 총경이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천 고흥서장은 교통과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강기현 청문감사담당관은 영평서장, 고은경 여성청소년과장은 화순서장, 배승관 교통과장은 장성서장으로 옮긴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정덕진 총경이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맡게됐고 송기주 총경이 형사과

장, 박상훈 총경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성록 진도서장은 경비과장, 김중호 광양서장이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박익규 보성서장이 생활안전과장으로 옮기고 김중득 장성서장은 교통과장을 맡는다.

차복영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은 목포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병운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순천서장, 김선우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이 나주서장으로 발령났다.

장진영 전남청 홍보담당관은 광양서장으로 부임하고 고영재 과학수사과장은 고흥서장, 송세호 형사과장은 해남서장, 오임관 총경이 보성서장을 맡게됐다. 조우중 영암서장은 경찰청 안보수사과장으로, 서태규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영암서장, 김진조 경비과장은 진도서장으로 옮겨간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조선대병원, 폐렴 적정성평가 '100점 만점'

### 4회 연속 1등급

조선대병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4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 질환이지만 기침, 가래,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을 감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는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더욱이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2010년 사망원인 6위에서 2019

년 3위로 사망률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73.6점을 크게 상회하는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실시된 4회의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폐렴 치료 우수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정중훈 조선대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풀뿌리 공익활동 사업' 공모 광주인권평화재단 내달까지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인권·정의·평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분야는 인권과 평화,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자치 등이다.

공익활동 소모임 또는 풀뿌리 및 시민사회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12월까지다. 단채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인권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활짝 & 힐링이 있는 남원여행

# 남원의이름

숲에서 휴식 운동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롯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아하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행사골계곡

인공 서어나무숲 | 지리산 허브밸리 | 숙박시설 에코롯지 | 백두대간 트리아하우스

**남원시**  
 www.namwon.go.kr